

100만명의 촛불집회가 ‘휴지줍기운동’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전문가 칼럼



송영복
스페인어학과 교수

참 오래간만이다. 답답하고 암울 하던 세상에 모처럼 희망이 느껴진다. 솔직히 나라야 벌써부터 꽃이 말이 아니었고, 국민들은 그냥저냥 목구멍에 풀칠하며 마지못해 살아왔다. 그러다 새로운 사건이 터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만은 견디지 못할 거야, 100만 명이나 모였다는는데 ……”, “여당이건 야당이건 혹은 한겨레건 조선일보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성토하고 나섰는데 이번에야 무슨 사단이 나도 나겠지.” 대통령 하야가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통쾌하기까지 하다. 그동안의 암울하던 현실이 이 기회에 뭔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한다. “세상에 살다 살다 TV조선을 흐뭇한 맘으로 보게 될 날이 올 줄이야.” 이번 사안의 폭발력이 가히 상당하기는 한가보다.

그런데 그런 통쾌함도 잠시, 이내 암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다.

대통령 퇴진과 공권력에 의한 관
련자 구속 및 법정처리 그리고 부정
한 돈의 국고 환수 정도가 그나마 최
선의 시나리오인 것 같다. 이것을 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초라해
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더해 현실적인 최악의 결과를 생가
해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여론
이 조용해질 때까지 버티며 몇 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는 정도에서 끝
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나
마도 이후의 호화로운 수감생활과 감
형 그리고 정치적 회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려질 광복절 특사는 의
숙한 수순이다. 이게 고작 우리가 바
라는 것인가?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



▲ 지난 12일 서울시내 집회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사진=차관호 기자)

나라의 법질서와 사회정의가 확립될 것으로 보는가? 작금의 현실을 있게 만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 할 것이 너무도 뻔해 보인다.

라면 오늘의 외침은 그냥 락 콘서트의 합성과 무엇이 다르랴. 집에 와 보면 찌든 현실이 그대로 놀어붙어 있는 그 명명이 같은 상황 말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또 물타기 희망을 이야기 할 것이다. 차분히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 가꾸어 나가보자 하겠지. 교양인의 성숙한 자세로 폭력과 극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을 것 같다. 이럴 때 화합을 위한 양보와 타협이라는 소리도 멎지게 등장한다. 그리고 바쁜 일상은 다시 돌아가고, 잊혀지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다시 현실은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제2의 박근혜를 만들어 내리라. 1945년에도, 1961년에도 1980년에도 항상 그래왔다.

민초의 함성에 의하여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역사가 한반도에 있거나 한가? 현재까지는 그런 적이 없기에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이루면 될 것이라는 말은,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적인 것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란 감동적인 말은 집어치워라.

그럼, 어쩌자는 건가? 대답은 명화

하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줄잡아 하루에도 40여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렇게 죽어 자빠질 수밖에 없는 나라다. 사기 치지 않고 사는 정직한 사람들은 평균 수명마저도 낮은 나라다.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한명이라도 더 구해야한다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동안 기득권이 우리에게 주입시킨 관용과 화합이라는 덕목의 세뇌에서 벗어나야 한다. 100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죽일 수도 있어야한다. 관용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인간들에 대한 준엄함 이후에 이야기 되어야 한다. 화합은 정의를 바로 세운 기틀 위에서나 살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사적 필연이었으며 극히 당연한 사법적인 정의구현이다. 국가라는 틀의 존재 이유이고 인간과 사회의 기본이다.

만일 이번 사건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며 바로잡지 않는다면 광화문 100만은 또 다시 교양 있는 시민들의 '휴지줍기운동'이라는 허탈한 해프

닝에 그칠 것이다.

참여마당

정재환
(경제학 2015)



미래를 책임질 우리부터 권위주위를 내려놓자

요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뉴스가 언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을 짓밟았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개인 혹은 소수의 집단이 국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해야 하는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12일 촛불집회에서 100만 명의 국민이 외쳤던 대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문제가 해결돼 국정이 정상화 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촛불집회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단순히 좋아하기만 하면 될까? 안 된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고 매듭지으면 안 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퀄리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한 사람이라는 알기 쉬운 기호만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일 국민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고민 없이 대통령만이 바뀐다면 제2, 제3의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는 우리 역사에 또 다시 등장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등장할지도 모른다.

“12일 민중총궐기가 하나의 촛불집회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앞장서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우리 대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성세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성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변화를 이끌 더 큰 원동력과 잠재력은 대학생들에게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대학생들이 변화를 이끌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은 되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헬조선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에 나가 언젠가 부, 명예,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권위주의적 습관’을 내려 놓아야 한다. 이것들이 가져오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적 습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위를 이용하여 을(乙)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넘어서서 국정을 농락했고 단 한사람과만 소통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누군가 ‘갑’의 입장이 되었을 때 권위주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을’은 무서워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최순실 사태가 공론화되기 이전에 알았지만 묵인하고 있던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이 지금은 차례차례 나타나 증언을 하고 있다. 이 사태를 지켜본 우리는 도를 넘은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서로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현상유지와 발전이라는 기로에서 있는 지금, 대학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The image features the DGIST logo at the top center, consisting of the letters 'DGIST' in a stylized, bold font with a purple-to-white gradient. Below the logo is a white rectangular box containing the Korean text '2017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Underneath this box is another line of text: '21C 세계 융복합 과학기술의 중심, DGIST에서' followed by '지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The background of the upper half is dark blue. At the bottom, there is a photograph of the DGIST campus at night, showing several modern buildings with illuminated windows and a well-maintained green landscape.

봄학기 전형 원서접수		장학혜택 및 특전		
12.15 ^{Thu} ~ 12.29 ^{Thu}		※ 전공별 특성화된 장학혜택은 각 전공 홈페이지 참조		
전공별 모집과정	전 공	과 정	분 류	내 용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 가능	납입금 면제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기술사 입주	전원 입주 가능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해외연수 실시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연수 지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ürich, UC Berkeley),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뇌·인지과학전공			전문연구요원 편입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뉴바이오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국가 기대연구과제 참여	▪ DGIST 융합연구원 및 소속 9개 센터 (DGIST-LBNL신물질연구센터,マイクロレイ저융합연구센터, DGIST-ETH마이크로로봇연구센터, 고신뢰ICPS연구센터,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태양에너지융합연구센터, 웰니스융합연구센터, 핵심단백질자원센터, 월레이징연구센터)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DGIST 캠퍼스가 궁금하다면?	www.dgist.ac.kr/virtualt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자/장소 : 매월 둘째주 금요일 / DGIST 서울홍보센터 • 전공별 교수와의 소규모 면담시간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홈페이지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